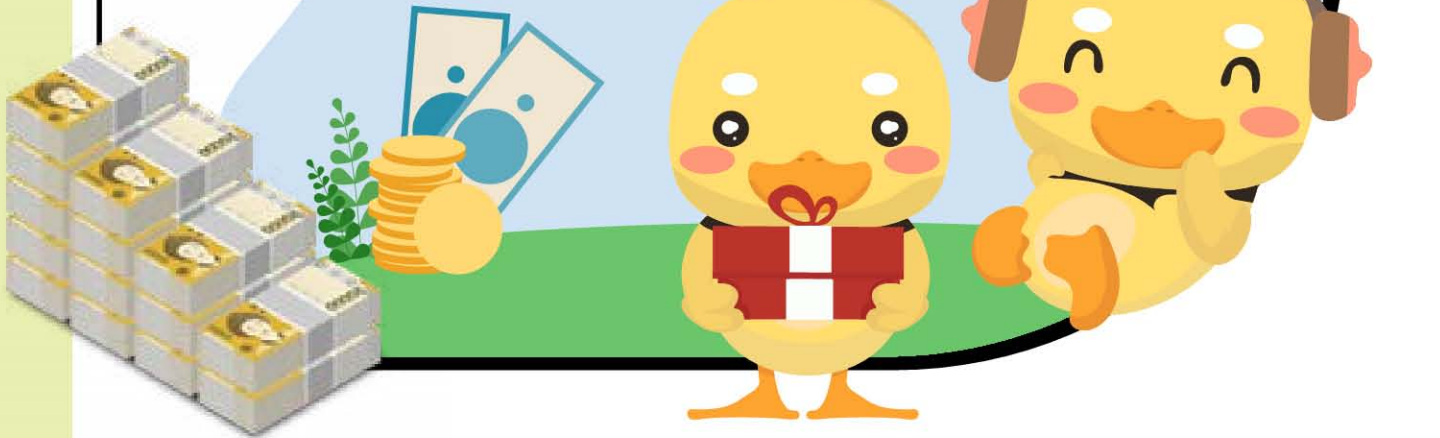


‘돈 되는 오리’

HPAI로 인해 오리 산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HPAI 발생농장은 물론 예방적 살처분 농가들은 더욱 상심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언제나 희망은 있듯이 재입식의 그날은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오리농가에서 농장 경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오리 사양관리, 방역요령 등을 게재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리 농가 사육유형별 차단방역 매뉴얼 IV

차단방역(biosecurity)이란 동물질병의 발생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차단 방역은 가축 질병이 없는 건강한 동물을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일단 전염병이 걸리면 신체적인 손실과 함께 경제적인 손실도 초래하기 때문이다. 특히 가축이면 제대로 방역하지 않으면 전체 사육 농가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 이를 막으려면 예방이 최우선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한 것이 차단 방역이다.

차단 방역은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어려운 기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농장에서 행해지는 청소와 소독을 통하여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이에 반석가금연구소의 오리 농가 사육유형별 차단 방역 매뉴얼을 연재해 농가들의 자발적이고 올바른 차단 방역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오리사, 청결 구역이자 통제구역 차단방역상 매우 중요한 구역으로 중요성 상기해야



전용장화 착용 및 신발소독

오리사 출입 절차의 중요성

오리사는 오리를 직접 수용하여 사육하는 장소로 오리의 분변 및 분진 등이 있어 얼핏 보기에 지저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차단 방역의 기준으로 보면 외부의 오염으로부터 완충 지역 등을 통하여 완전하게 차단된 '청결 구역'이다. 또한, 일차적으로 농장 입구에서 농장 안으로 진입하는 인원이나 차량을 제한하고 있으나, 오리사의 출입을 더 엄격하게 통제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통제구역'이기도 하다. 오리사에 출입한다는 것은 병원체를 직접 오리사 내로 유입시키거나 오리사 내에서 밖으로 유출하는 것일 수 있어서 차단 방역 상 매우 중요한 구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꼭 필요한 인원만 오리사에 들어가고 이외의 모든 사람은 접근을 제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오리사 출입구 관리

오리사의 출입구는 질병의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마지막 방어선으로 출입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질병의 전파 위험이 매우 큰 곳이다. 따라서 부적절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하다. 오리사로 통하는 모든 출입문은 기본적으로 잠겨있어야 한다.



잠금장치가 잘되어 있는 오리사 입구 사진



잠금 상태가 불량한 오리사 입구 사진



오리사입구 접근방지 경고

1 일상적인 출입이 필요하지 않은 모든 후문은 안에서 여닫을 수 있도록 장치하고 문 안쪽에 막대나 걸쇠 등을 걸어두는 정도로도 충분하다.

2 정문의 경우 양방향에서 모두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번호를 입력하여 여닫을 수 있는 장치의 경우 열쇠를 이용하는 것보다 덜 번거롭고 열쇠 분실 등의 문제가 없으므로 관리가 편리하다. 농장 관리자 및 최소의 출입 필수 인원에게만 번호를 알려주어 사용한다. 농장 관리자는 정문으로 다니는 인원의 출입을 항상 통제해야 한다.

3 오리사 내부에 있는 인원의 안전을 고려한 비상구가 있어야 한다. 응급 상황에 대비하여 오리사의 안쪽에서 쉽게 문을 열고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문을 설치(무창계사의 경우 필수)하는 것이 안전상 유리하다. 따라서 부수고 탈출할 수 있도록 설계한 정교한 잠금장치가 간단한 잠금장치보다 좋다. 이러한 장치는 문을 항상 잠그고 있다가 필요한 경우 쉽게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4 오리사의 문은 항상 잠겨있어야 한다. 그러나 안쪽에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문을 잠글 필요가 없다.

5 오리사는 동별로 출입하는 위치에 접근방지 경고, 소독시행 안내, 농장 관리자 연락처 등이 적혀있는 출입안내문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표지판은 쉽게 볼 수 있고, 쉽게 읽을 수 있어야 하며, 청결히 관리해야 한다.



잠금장치가 잘되어 있는 오리사 입구 사진



잠금장치가 잘되어 있는 오리사 입구 사진

사육유형별 적용 방안



축종별

종오리

- 오랜 기간 동안 사육하는 종오리의 일반적인 특징상 질병에 노출되고 순환감염 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더욱 철저한 출입구 관리가 필요하다.
- 오리알을 안전하고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충분한 면적의 전실을 확보하고, 오리알 다발이 전실을 통하여 보관 장소로 옮기도록 하며, 모아진 오리알을 수송용 차량으로 옮겨 실을 수 있도록 별도의 출입구와 상차대를 만든다.
- 난좌 재활용, 계열화에 따른 방역의식 취약, 관련차량 및 종사자 소독 미흡 등으로 전염병 발병 위험성이 크다.

육용오리

- 계열사 직원의 오리 체중측정 등을 위한 정기적인 방문이 잦아 이들에 대한 출입 제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사육형태별 · 환경별

모든 사육형태별 구분 없이 동일한 수준의 출입구 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야생동물들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에서는 이들 동물들에 대한 오리사 차단대책도 강구해야 한다.

〈자료출처 : 반석기금연구소〉